

SAT II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손성옥*

1. SAT II 한국어와 미국대학입시

미국 대학 입학 수능시험은 SAT I(Scholastic Assessment Test 학구적 평가 시험), 그리고 SAT II로 구성되어 있다. SAT I은 수학(Math)과 언어 능력(Verbal) 두 가지에 대한 Reasoning Test이며 시험 시간은 세 시간, 주로 사지 선다형으로 출제된다. SAT II : Subject Tests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한국어를 비롯해서 외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작문, 문학, 생물, 화학 같은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한 시간이다. 한국어가 미국 대학 입학 수능시험으로 채택되어 처음 시행된 것은 1997년이며, 첫 해 응시자 수는 2,477명, 이들의 평균 점수 649점(800점 만점 기준)이었다. 1998년에도 비슷한 숫자가 응시했고, 평균 점수는 751점으로 첫 번째 시험에 비해 100점 가까이 뛰어올랐다. 2000년 11월 4일 실시된 네 번째 SAT II 한국어 시험은 사상 최대 규모인 2,766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99년 시험에 비해 23.1%나 증가한 것으로

* 미국 UCLA

로 SAT II 한국어가 점점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앞으로도 응시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AT II 시험 주관처인 미 대학위원회 부설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시험에 중국어는 5,466명, 일본어는 1,464명이 응시했다).

SAT II 한국어 시험은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일 년에 한 번(보통 11월 첫째 토요일) 지정된 장소(Testing Center)에서 실시된다. 듣기 테스트를 위해서 학생들은 미리 카세트 플레이어를 각자 지참해야 한다. 응시자들은 졸업반이 되기 전에 미리 9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 두었다가 제일 좋은 점수를 골라서 보내는 게 유리하다. SAT II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대학 위원회는 적어도 두 번 정도 같은 과목 시험을 봐 두었다가 제일 좋은 점수를 지원하는 대학에 보낼 것을 추천한다. 여러 번 시험을 응시한다고 해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마다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면 입학 사정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참고 : 미주 중앙일보 주최 UCLA 입학사정기준 발표에 근거).

미국 내 한국 이민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University of California 모든 계열은 입학 사정 기준으로 SAT II를 요구하고 있다.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는 SAT II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미 대학위원회에 의하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미 대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SAT I 보다 SAT II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계 학생들이 SAT II 한국어를 채택할 경우, 제일 큰 장점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 시 유리해진다는 사실이다. 1997년 11월 첫 실시된 SAT II 한국어의 평균 점수는 다른 SAT II 외국어 과목들—스페인어, 불어, 독어보다도 약 50점 정도 높다(더 자세한 것은 미 대학위원회에서 발표한 1998 College-Bound Seniors를 참조할 것). 두 번째 SAT II 한국어 시험부터는 예상문제집을 비롯하여 홍보가 잘 된 탓인지 평균 점수도 SAT II 역사상 중국어 다음으로 높은 751점이었다. 평소 집에서 한국어를 접하면서 자라난 교포 2세 학생들에게는 다른 어떤 SAT II 외국

어를 선택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응시자들의 배경

한국어 수험생들 대부분은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이다. 1997년 경우 전체 응시자 2,477명 중 1,673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다. 1998년 두 번째 SAT II 한국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중에 영어가 모국어라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2,433명 중에서 698명(28.7%), 이들의 평균 점수는 711점으로 이는 스페인어나 다른 유럽어 과목들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다.

1998년 SAT II 한국어

응시자 수 2,433명, 평균 751점(800점 기준)

전체 응시자의 55%가 750-800 사이의 점수를 받았음.

(참고) 한국계 학생들의 SAT I 영어 평균 : 558, 수학 평균 : 628

1998년 응시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한국어 배경은 다음과 같다(다음 자료는 ETS 통계자료에 근거함).

SAT II Korean with Listening, November 1998

Response to Background Questions(total # of test takers=2,433)

| Background Questionnaire Response | Number of Students | Mean Score | Standard Deviation |
|---|--------------------|------------|--------------------|
| 1. Learned Korean at home | 1436 | 745 | 70 |
| 2. Studied Korean at a US high school | 179 | 723 | 74 |
| 3. Studied Korean at a Korean language school, Grade 1-8 | 756 | 743 | 67 |
| 4. Studied Korean at a Korean language school, Grade 9-12 | 296 | 732 | 71 |
| 5. Lived in Korea longer than one year after age 10 | 726 | 783 | 27 |
| 6. Studied Korean in Grades 9-12 for less than 2 years | 1139 | 753 | 66 |
| 7. Studied Korean in Grades 9-12 for 2 - 2 1/2 years | 170 | 738 | 71 |
| 8. Studied Korean in Grades 9-12 for 3 - 3 1/2 years | 115 | 727 | 75 |
| 9. Studied Korean in Grades 9-12 for more 3 1/2 years | 227 | 756 | 59 |
| Total Group | 2433 | 751 | 66 |

(Note : Test scores are on a scale of 200-800. For questions 1-5 students checked all that applied. They selected only one of Questions 6-9.)

위의 배경 조사에서 드러나듯 응시자들 대부분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2세대이거나(1,436명) 열 살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학생들로(726명) 밝혀졌다.

3. SAT II 한국어의 출제 방식과 출제 과정

SAT II 한국어 시험의 목적은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어의 기본

회화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다. 고등학교 정규 수업에서 외국어로서 3~4년 정도의 한국어를 수강한 학생들의 수준(일주일 5시간 수업 기준)에 맞추어 출제된다. 시험은 듣기, 문법, 독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한 시간(듣기 20분, 문법과 독해 40분), 그리고 문제 양식은 전부 사지 선다형이다. 전체 문항 수는 보통 80~85 정도이며 점수 비율은 듣기 35%, 문법 30%, 독해 35%이다.

SAT II 한국어 문제는 5~6명의 출제 위원에 의해 대부분 초안이 작성된다. 모든 출제 위원 선정은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최종 결정하며, 2000년 12월 현재 한국어 출제 위원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두 사람과 대학 교수 세 사람,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남 2, 여 3). 출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출제 위원이 듣기, 문법, 독해 세 분야에 걸쳐 골고루 주어진 주제로 문제를 작성해서 미국 동부 프린스턴에 위치한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로 보낸다. ETS에서는 한국어 담당 전문 위원이 각 출제 위원들이 보낸 문제들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다시 모든 출제 위원들에게 돌리는데, 이 때 출제 위원들은 자기가 출제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출제자들이 만든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달아서 다시 ETS로 돌려보낸다. 이 단계가 끝나면 전체 출제 위원들과 ETS 전문 위원들이 참가하는 3일간의 회의가 열린다. 한국어가 대학 입시에 처음으로 채택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 년에 두 번 회의를 했으나, 2000년도부터는 다른 외국어처럼 일 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 3일 동안 하루 8~10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모든 필요한 수정 사항을 최대한 조율한다. 시험 문제의 초안이 작성되면 ETS 자체에서 sensitivity test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항목별 내용이 공정한지, 특정 문화, 종교,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지 점검한다. 특히 응시자들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음주, 담배, 낙태, 총기류, 소수 민족, 교통 사고, 죽음, 기타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들을 검토한다. 출제 위원들의 마지막 점검을 거친 초고는 외부 reviewer에 의해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친 후, pre-test라는 field test 과정을 거친다. pre-test는 고등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Pre-test 결과는 ETS의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분석되는데, 항목별로 문제의 난이도나 변별력, 신뢰성(reliability)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통계 분석을 통해 신뢰도가 인정되는 문제만 마지막 출제 항목으로 뽑힌다.

출제 내용과 유형

첫 번째 section 듣기는 일상 회화체의 대화 또는 광고 등의 형식이며 질문과 선택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회화 내용은 시험지에 인쇄되지 않으며, 단 한 번만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

(아래에 소개되는 sample questions은 모두 홍보용으로 미국 대학위원회에서 제공하는 Taking the SAT II : Subject Tests(1999~2000) by the College Board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 둔다.)

Sample Listening Questions

(Approximate Time—20 minutes)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en answer questions 3 and 4.]

(여자) 한수야, 어제 전화했는데, 너 어디 갔었니?

(남자) 어제 우리형이 동부에서 와서 공항에 마중 나갔었어.

(여자) 너, 형이 동부에 살아?

(남자) 응, 대학교도 거기서 다녔는데, 지금은 졸업하고 회사에 다녀.

(여자) 좋겠다. 형이 와서.

여기 얼마나 있을 건데?

(남자) 오래 있으면 좋을 텐데, 휴가가 사흘밖에 없대.

[Question 3. Where did Hansu go yesterday? (15 seconds)]

- (A) To his brother's office
- (B) To his brother's house
- (C) To the airport
- (D) To a graduation ceremony

[Question 4.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based on the conversation you have just heard. (15 seconds)]

- (A) Hansu's brother is moving in with Hansu.
- (B) Hansu's brother has a four-day vacation.
- (C) Hansu's brother works on the West Coast.
- (D) Hansu's brother went to college on the East Coast.

[Listen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Then answer Questions 5, 6, and 7.]

[Question 5. What is being announced?] (15 seconds)

- (A) That service is not affected.
- (B) That service will be restored.
- (C) That a new line will open on the following day.
- (D) That there will be no service at 3 o'clock.

[Question 6. Which subway line has a problem?]

- (A) 2
- (B) 3
- (C) 4
- (D) 5

[Question 7. What is the cause of the problem?]

- (A) Construction
- (B) A strike
- (C) Mechanical failure
- (D) Power failure

Sample Usage Questions (문법) Section II

Direction : This section consists of a number of incomplete statements, each of which has four suggested completions. Select the word or words that best complete the sentence structurally and logically and fill in the corresponding oval on the answer sheet.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_____

- (A) 살겠다
- (B) 살았다
- (C) 살랐다
- (D) 살렸다

문법 부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철자나 단어는 선택 항목에 넣지 않는다는 ETS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독특한 철자법을 테스트하기에 한계가 있다. 문법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문맥을 주고 빈칸을 채워 넣는 cloze-test type도 들어간다.

Sample Cloze-test Questions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급해 서두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어른들에게 꾸중도 1._____ 들었고, 늘 학교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덤벙대고 집에 두고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는 이삼일 전부터 준비해 놓으라고 야단법석을 2._____ 어머니 속을 무척 3._____ 드렸다. 그러나 이 급한 성격 덕분에 숙제만은 학교에서 오자마자 먼저 해 놓고 놀기 때문에 숙제로 걱정 4._____

- 1. (A) 자주 (B) 마침 (C) 드디어 (D) 좀처럼
- 2. (A) 섞여 (B) 섞어 (C) 썩여 (D) 썩게

3. (A) 떨어 (B) 들어 (C) 떨어 (D) 들어
4. (A) 해 본 적이 있다 (B) 해 본 적이 없다
 (C) 하는 수가 있다 (D) 하는 수가 없다

Sample Reading Questions (독해) Section III

일반 서적, 종교 서적
 각종 월간지 등
 다양한 서적 구비
 우편 주문 환영,
 신속 배달 보증
 회원에게는
 각종 월간지 할인 판매

1. What kind of business is being advertised?
- (A) A bookstore
 (B) A gift shop
 (C) A delivery service
 (D) A drugstore
2. How can one receive a special discount?
- (A) By mail order
 (B) By using a credit card
 (C) By membership
 (D) By using a large quantity

독해 부분은 주로 광고, 일기, 편지,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추출한다. 질문과 선택은 영어로 주어지며 선택을 만들 때 정답과 반대되는 내

용은 피하고, 항목끼리 음절 수가 지나치게 차이나는 것도 피하는 원칙에 따른다. 또한 독해 능력에 상관없이 일반 상식이나 시사 상식에 의존하여 풀 수 있는 내용도 철저히 배제된다. 독해의 문장 길이는 150단어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SAT II 한국어 시험의 한계

SAT II 한국어의 가장 큰 한계는 문제 유형이 전부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응시자들 대부분이 교포 2세 출신인 것을 고려할 때 2세들이 가진 독특한 배경, 즉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차이와 작문 능력을 전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SAT II 한국어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듣기에서는 만점을 받는 응시자라도 전혀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듣기의 경우 문제 유형 대부분이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일상 회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회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의 대화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런 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예를 들어 대화 중 일어나는 겹치는 부분, 끼여들기, 중단 등 다양한 상황들이 듣기 테이프에만 의존하는 현재 SAT II 양식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험이 일 년에 단 한 번 실시되기 때문에 미처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시험 볼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도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자라는 응시자들에게 외국어 능력 시험을 순전히 paper-pencil test로 보게 하는 것도 시대에 뒤진 감이 없지 않다. 다양한 visual image 또는 살아있는 비디오 이미지가 듣기 테스트에 꼭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5. SAT II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전망

5.1. 고등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 정립

응시자들이 SAT II 한국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교과 과정에 이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큰 도전이다. 현재 미국 내 정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34개 교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어 응시자 수가 평균 2,7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한국어 응시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은 가정에서나 아니면 주말 한국 학교를 통해서이다. 주말 한국 학교가 교포 2세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을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정규 미국 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자질 있는 한국어 교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응시자 대부분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위한 credentialing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2세 학생들과 문화적 거리감이 없는 1.5세 교사의 양성이 바람직하다.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영어권 고등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도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적절한 교과서가 없어 각자 형편에 따라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학생용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과과정을 정립하고 각 고등학교마다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급한 과제이다. 기본 어휘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SAT II 한국어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5.2. 한인 사회의 정확한 홍보 : SAT II 한국어 채택과 대학 입학 후 얻는 장점들

SAT II 한국어가 실시된 이후 해마다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홍보와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SAT II 한국어 시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전혀 엉뚱한 소문을 믿고 있는 경우도 많다. 지난 5년간 SAT II 한국어 출제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인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과연 한국계 학생들이 SAT II 한국어를 채택해도 대학 입학 때 유리한가 하는 질문이었다. 한국계 학생들은 한국어 시험에서 아무리 고득점을 받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 UCLA를 포함한 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의 경우, 한국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경우 오히려 입학 사정에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 선발 기준의 65%는 학업 성취도 기준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35%는 학업 성적 외에 다른 기준을 고려해서 선발하기 때문이다(comprehensive review). 즉 입학 기준으로 특별 활동이나 봉사 활동, 스포츠, 예술 등에 대한 우수성을 다 포함하는 데, SAT II 한국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탁월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입학 사정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구사 능력은 대학 입학 후에도 여러 장점이 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의 경우 대학 입학 후 1년 내지 2년 정도의 외국어 수업을 요구한다. 만약 시간표가 다른 전공 과목과 중복되어 들을 수 없으면 다시 일 년을 기다렸다가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 배경이 있는 경우 한국어 배치고사(placement test)를 거쳐서 최소한 한 학기에서 일 년 정도는 면제받을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SAT II 한국어에서 630점 이상을 받으면 일 년 과정의 한국어를 면제해 준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배경은 대학 입학 후 동양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요즘 미국 대학에서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은 복수 전공 과목으로 학생들 사이

에 인기가 높다. UCLA의 경우 한국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 한국어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한국어 배경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졸업하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또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은 언어와 동양 문화권의 유사성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 한국학은 전공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학이나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부전공으로 적합하다. 특히 대학 졸업 후 법대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은 경쟁 사회에서 졸업 후 취업에 더 유리한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에서 광고하는 직장은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구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법대나 교육계 쪽에서도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지원자들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준다.

5.3. 이중 언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의 위상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2세들은 대개 만 5세 정도까지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영어 문화권에 더 친숙해질수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많은 한인 부모들은 아이들의 한국어 사용이 영어 습득에 지장이 있을까 봐, 또 한국어로 일일이 말하자니 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의 영어 사용을 묵인한다. 과연 2세들의 한국어 습득은 영어 습득에 지장을 초래할까? 손성옥(2000b)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인 2세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영어 습득 과정과 한국어 능력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았다. 결과는 놀랍게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어로 수업을 받은 학생일수록 Stanford 9 Test에서 영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즉 유치원에서는 똑같이 영어 능력 미숙 학생이었지만 학교에서 꾸준히 한국어로 수업을 받은 한인 2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2세 학생들보

다 4년 후 영어, 수학, 영어 읽기 능력 등 모든 Stanford 9 test에서 월등하게 나온 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교육학에서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2세들의 경우 미세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정도로 한국어 수준이 되어 있다면 영어를 배울 때도 같은 인지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능 개발과 학업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반대로 집에서 줄곧 한국어를 쓰다가 미국 정규 학교에 들어가면서 한국어 사용을 중단할 경우 일반 인지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아이가 겪는 사회 심리적 충격은 엄청나다. 집에서 쓰는 한국어가 주류 사회와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이는 당연히 위축감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 4년 사이 남가주의 주말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33%나 감소하는 등 한국어를 배우는 2세가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한국어 교육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미주 한국일보 2000년 11월 20일자 발표). 수강생 감소의 원인으로는 주입식 교육, 낙후된 외국어 교수법과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교재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꼽을 수 있다. 주말 한국 학교의 수강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남가주 내 공립학교에서는 오히려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이중 언어 교육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주민 발의안 227과로 폐지된 이중 언어 교육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 이중 언어 교육은, 영어 미숙 학생들을 위해 이민자 자녀들이 영어에 숙달될 때까지 학생들의 모국어로 수업을 하거나 단순한 영어 번역을 통한 수동적인 학습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영어 습득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모국어 습득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LA 통합 교육구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Two-way Immersion Program) 캐나다의 불어-영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국어와 영어 모국어 사용자를 각각 반반씩 섞어 2개 언어를 동시에 습득함으로써 영어, 수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높

이는 데 목적이 있다(더 자세한 것은 손성옥(2000b)을 참조할 것).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집에서 또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한국어를 접하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대학 4년 내내 한국어를 공부해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발음이나 회화 능력에서 우수하다. 그러나 정작 2세들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전혀 자신감이 없거나 자부심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미국의 사회 구조는 소수 민족계 2세가 이중 언어를 잘 습득할 만큼 고무적이지 않다. 남미 출신 한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남미계 한국 학생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Washington D. C.에 소재한 National Foreign Language Center 중심으로 미국 내의 언어 교육자들 사이에 전통 언어 육성(Heritage Language Conservation)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외국어 교육, 특히 소수 민족 언어를 소홀히 대할 경우 머지 않아 학문 발전이나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자각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어는 미국방성 언어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즉 카테고리 IV 언어에 속한다.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경우 다른 유럽 언어들을 배우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의 적어도 세 배 이상을 투자해야 비슷한 언어 구사 능력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한인 2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한인 2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 지원력이며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공립학교에서의 한영 이중 언어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한인들은 자녀들의 이중 언어 습득을 격려하고 2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해 좀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SAT II 한국어 시험 준비를 위한 참고 자료

SAT II 한국어를 위한 공식적인 Sample test로서 미 대학위원회에서 출판한 *Real SAT II : Subject Tests*(\$17.95 듣기 테이프 포함)를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책은 실제 SAT II 한국어 출제 위원들이 선정하고 만든 40문제가 듣기 테이프와 함께 수록되어 있어 가장 실제 시험과 유사한 시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습 문제지로는 한국 학교 연합회와 SAT II 한국어 진흥재단에서 만든 SAT II 한국어 예상문제집도 있다.

《 참고문헌 》

- College Board(1999~2000), *Taking the SAT II : Subject Tests*.
- Ree, Jungno(1998), "An overview of the SAT II Korean Test",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 Korea.
- Sohn, Sung-Ock(1998), "Teaching Korean to heritage learners : pedagogical challenges and national needs",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 Korea.
- _____ (2000a), "Writings by Heritage and Non-Heritage Learners of Korean at a College-Level : A Comparative Error Analysis", *At the Conference on the Critical Issues in Korean Studies in the Millennium*, University of Hawaii. February.
- _____ (2000b),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Korean 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Americans in three different programs", (With Craig Merrill, Hee Ju, Mikyung Kim) *Paper presented at the AAAL 2000*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Vancouver, British Columbia. March.

Abstract

SAT II Korea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Sohn, Sung-ock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I(Reasoning Test) and the SAT II(Subject Tests) are designed to assess many of the skills that are important to students' success in college. In 1997, Korean is adopted in SAT at first. The number of participant in SAT II Korean is on the increase.

The object of SAT II Korean test shall be to measure the ability of speaking and understanding accurately and fluently. Its questions are devised by 5~6 members who constitutes the a examining committee.

A Style of setting questions is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is hearing test. It is composed the conversational form of Korean. The second is grammar test, and the third is reading.

SAT II Korean has two limits. One is that it can't evaluate speaking and writing ability of students because of its multiple choice system. The other is that it is held once a year. In addition, SAT II has to adopt a new test system which is proper to the multi-media age.

To foster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reign language and SAT II Korean, we should develop the Korean language materials for high school students. Also we have to establish and standardize the curriculum of Korean as foreign language. It is necessary to furnish

correct information about SAT II Korean on Koreans in America. Koreans in America should encourage their offsprings to become bilingual. And they should think highly of their offsprings' having a good command of Korean.